

저자 키워드와 초록 분석을 통한 법학사서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aw Librarians through Author Keywords and Abstract Analysis

이 세 나 (Sena Lee)*

이 성 신 (Seongsin Lee)**

백 수 민 (Sumin Baek)***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 방법 |
| 2. 선행연구 | 5. 연구결과 |
| 3. 이론적 배경 | 6.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사서 관련 연구의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국내 법학 사서 관련 논의의 필요성과 주제 확장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 사서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 사서의 주요 역할이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학 사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search trend related to law librarians abroad. To this end, we collected articles about law librarians from abroad and analyzed the author's keywords and abstrac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mary roles of law librarians are legal research service, legal information service, and education service, and discussed topics on the changed roles of law librarian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research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their expertise. Based on the results, the issues and directions for research about law librarians in Korea were proposed.

키워드: 법학사서, 법률 연구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법률 교육 서비스, 법학 사서의 역량
Law Librarian, Legal Research Service, Legal Information Service, Legal Education Service, Competency of Law Librarian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dreammor@naver.com / ISNI 0000 0005 1267 0973)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leess@knu.ac.kr / ISNI 0000 0004 6092 2496) (교신저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영지원실 도서관 청년행정인턴
(sumin66983@gmail.com / ISNI 0000 0005 1449 1047)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2): 5-31,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2.005>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화 사회의 발전으로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스스로의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는 이용자 맞춤형, 전문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정보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검증의 역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학생, 교직원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이나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도서관'(문헌정보학용어사전, '전문도서관' 항목)에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 이용자 맞춤형, 전문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전문사서는 '주제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 영역에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서비스와 서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을 말한다(강미혜, 1999, 130). 주제전문사서의 역할로는 1)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2) 주제별 정보자원 관리, 3) 주제별 연구지원 서비스, 4) 이용자 리에종 활동, 5) 주제별 이용자 교육, 6) 도서관 운영 관리, 7) 주제별 능력 개발 등이 제시된다(안인자 외, 2009, 341).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은 참고사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참고사서의 일반적인 지식, 정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주제 분야의 서지 정보 검색, 이용자

와의 상담 업무가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고 있다(강미혜, 2005, 70).

전문도서관 중 특히 의학과 법률 분야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윤영대, 2003, 132), 이는 법률과 의학 분야가 주제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학사서와 의학사서의 주제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사서 양성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년제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사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정 주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일부 대학에서 진행되는 3-6학점의 특정 주제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듣거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통해 관련 주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밖에 없으며, 사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관련 전문 협회에서 진행되는 재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밖에 없다(오의경, 2016, 438). 주제전문사서 자격 부여 측면에서도 의학사서의 경우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의학사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오의경, 2015, 406), 법학사서의 경우 이러한 자격 제도가 없다. 이러한 양성과 자격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서관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법학전문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 평가에 '전문 사서 및 인력의 확보' 항목이 있으나 그 내용은 '1급 사서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사서 포함 행정직원 3인 이상 확보'로만 제시되거나(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 정재영, 2013, 133), '직원 중 사서 비율 50% 이상', '1급 정사서 보유'로만 제시된다(전문도서관의 경우, 한국도서

관협회, 2022, 224). 즉 도서관 평가 항목에서 전문 사서의 확보 여부를 1급 사서 자격증 소지 유무로만 확인할 뿐, 전문 사서의 구체적인 자격과 역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전문사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학계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지만, 주제전문사서와 의학사서에 비해 법학사서 관련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주제전문사서의 경우 주제전문사서의 현황(노동조 외, 2009; 황재영, 2011), 직무(안인자 외, 2008),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박수희, 정동열, 2012; 안인자 외, 2009), 운영 방안(정재영, 2009; 최상기, 안인자, 2009), 제도화(김수정, 2005; 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7),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노영희, 오의경, 2018; 오의경, 2016)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의학사서 역시 의학사서 자격제도 현황(오의경, 2015), 양성을 위한 교육(윤영대, 2002; 이해영, 2023), 의학사서들의 직무 소진(장혜란, 김정아, 2017)과 직무만족도(박정미, 김영주, 정지연, 1994), 코로나19 상황 인식(김태민, 김해원, 이민지, 2021)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학사서의 경우 관련 연구가 학술지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을 모두 합쳐 10여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법학사서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강미혜, 2002; 김상찬, 2009; 박유주, 2010; 오일석, 김성훈, 2014; 이종만, 2011; 임민정, 2015; 장지은, 1998; 홍명자, 2001).

이와 같은 법학사서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법학사서에 대한 학계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외에서 법학사서를 주

제로 진행된 연구를 수집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법학사서와 관련되어 어떤 주제와 내용이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주제전문사서에 대해서는 주제전문사서의 현황, 직무, 양성 방법, 운영 방안, 제도화, 인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황재영, 2011), 전문도서관의 경우 주제전문사서는 도서관 당 1-3명 정도가 배치되며, 주제전문사서의 4가지 주요 역할 중 주제별 연구지원 서비스 수행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71.2%). 구체적인 주제별 연구지원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검색 지원, 연구동향 및 단신 제공, 선행연구 조사 등이며, 주제전문서비스의 주요 성과로 사서 이미지 개선, 도서관 이미지 향상, 연구원(교수)과의 관계 개선 등이 언급되었다.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주제전문사서 수가 적어 전체 주제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고, 사서의 주제 배경 지식이 취약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의학 분야와 법률 분야에서 이 어려움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또한 주제전문사서의 주제 배경 지식에 대한 기준, 주제전문사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노영희 외, 2008, 113-115).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는 도서관 주제별 정보자원 개발, 정보자원 관리, 연구지원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 리에종 활동, 이용자 교육, 도서관 운영 관리, 주제별 능력 개발로 분석되었다. 주제전문사서의 업무는 일반 사서의 업무에 비해 '정보자원 개발과 관리'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리에종 활동',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었다(안인자 외, 2008, 548).

국내 사서 양성 과정에서는 주제전문성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 방안과 재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연구자들은 학부 과정에서 주제별 전문교과목을 개설, 강화하는 방안(남영준, 허운순, 2005, 61), 주제전문사서의 재교육을 전문화, 맞춤형하는 방안(강미혜, 2005, 83; 심원식, 2009, 553-556) 등을 제안하였으며, 그 외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를 제안한 연구(안인자 외, 2009)도 있다.

이와 같이 주제전문사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분야와 더불어 주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야는 의학 분야이다. 그러나 의학사서에 대한 연구는 법학사서에 대한 연구보다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국내 의학사서 자격제도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다. 의학사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신청 및 평가를 거친 후 자격증을 재교부받게 된다.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2015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의학사서 중 49.4%

가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중 82.9%가 유효기간 만료 후 재취득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오의경, 2015, 406, 417), 의학사서 자격제도가 의학사서들에게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학사서 역시 주제전문사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교육과정에선 사서의 주제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학부 교과과정에 의학 용어와 의학도서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사서의 계속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으며(윤영대, 2003, 143-144),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제공하는 의학사서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혜영, 2023, 83-84).

의학사서의 심화된 연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예시로, 의학사서의 체계적 리뷰 연구(systematic review, SR) 참여에 대해 진행한 연구도 있다. 의학사서들은 진행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데이터 수집, 탐색 전략 수립, 자료 수집,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탐색 교육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가 향상되었다 보고하고 있다(신은자, 2020, 187, 190). 뿐만 아니라 의학사서가 '소비자 건강정보전문사서(consumer health librarian)'라는 이름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의학 및 건강 관련 정보 자원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건강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노영희, 2013, 94, 101), 의학사서의 역할을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 외 의학사서들의 직무 소진에 대한 연구(장혜란, 김정아, 2017),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박정미, 김영주, 정지연, 1994), 사서들의 코

로나 19 상황 인식에 대한 연구(김태민, 김해원, 이민지, 2021) 등 의학사서와 관련되어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사서 자격제도의 실시, 이를 위한 사서 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의학 분야와는 달리 법률 분야는 법학사서와 관련한 기준, 자격,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정재영, 2007, 400). 이는 법학사서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법학사서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모두 검색해도 10여건에 불과한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일석, 김성훈(2014)은 법학전문도서관의 법학사서 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한국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미국 법학사서의 교육과 전문적인 역할을 살펴본 후 법학사서의 교육 방안과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미혜(2002)는 주제전문사서로서 법학사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재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주제서지' 과목을 활용하여 법학사서를 양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홍명자(2001) 역시 법학사서의 필요성, 역할, 자격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미국의 법학사서 교육 형태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학사서 양성을 위해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 전공'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법학사서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위에 제시된 논문 외 법학사서의 역할과 자격 요건에 대한 석사 학위 논문(이종만, 2011; 임민정, 2015), 법학사서의 직업정체성에 대해 내러티브 방법으로 탐색한 박사 학위 논문(이호신, 2012) 등이 있다. 그 외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학사서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법학사서의 수도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인을 포함한 행정직원 3인 이상'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장서의 수, 정보 서비스 대상자 수를 반영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김배원, 2013; 정재영, 2013).

3. 이론적 배경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는 '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서로 타 주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경영 책임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판단, 규칙과 절차의 해석, 도서관 문제의 분석 및 이를 위한 독창적, 창의적인 해결책의 강구를 요하는 전문적 업무의 책임을 맡은 전문가'로 정의된다(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주제전문사서' 항목). 주제전문사서의 다양한 분야 중 법률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특수한 전문 분야로,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사서들은 깊이 있는 전문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홍명자, 2001, 250).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서비스는 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의 법률과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문성은 정보서비스

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위키 백과,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개원하였으며, 2021년 기준 2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 법률의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을 위한 시설로 강의실, 교원연구실, 모의 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기준에서도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열람 공간의 확보', '전문사서 및 인력의 확보', '학술 저널 및 전자 자료의 충분한 확보',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문사서 및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사서 포함 행정 직원 3인 이상 확보'로만 제시하고 있어, 법학사서의 자격이나 갖추어야 할 지식·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 수나 이용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사서 수 배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김배원, 2013; 정재영, 2013).

미국에서는 법학사서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학사서는 교수, 직원, 학생,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법률 정보 서비스, 참고 서비스,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학

전문도서관 자원에 대한 수서, 목록 작업을 진행하며, 장서개발정책을 검토하고 개정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의 법률 장서와 다양한 온라인 자원을 안내하는 매뉴얼, 가이드, pathfinder를 제작하기도 한다. 또한 법학사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 연구 강의를 담당하기도 하며, 그래서 법학사서가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Lee, Jootaek, 2015, 420-421). 법학사서에게는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MLS)가 요구되며, Juris Doctor(JD)는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AALL)에서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학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 이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법학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Competencies of Law Librarianship>을 대체하여 2022년 공개한 <AALL Body of Knowledge(Bok)>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AALL Body of Knowledge(Bok)>(AALL, 2022)에서는 법학사서가 법률 전문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영역(domains), 역량(competencies), 기술(skills)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역은 핵심 콘텐츠의 전문 분야를 의미하며, 역량은 각 영역의 숙련에 필요한 핵심 지식 영역, 기술은 역량을 적절하게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법학사서에게 필요한 전문 분야는 6개로 제시되며, 각 영역은 구체적인 역량과 기술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표 1>은 <AALL Body of Knowledge(Bok)>에서 제시하는 6개의 영역과 각 영역별 역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AALL Body of Knowledge에서 제시하는 법학사서가 법률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영역과 역량

Domains	Competencies
professionalism + leadership at every level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strategic problem solving collaboration + team building ethics continuous learning + professional development
research + analysis	knowledge of law + legal systems knowledge + navigation of information sources critical evaluation + synthesis of information ethical use of information
information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ation + access preservation + retention knowledge management information governance + risk management
teaching + training	instructional design + planning presentation + delivery assessment + metrics
marketing outreach	promotion of value user experience partnerships + community relationships advocacy
management + business acumen	vision + strategic planning budgeting + procurement funding + development benchmarking + data analysis

또한 AALL은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AALL, 1988)을 통해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법학사서에게 필요한 교육 영역을 general competencies와 subject competencies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general competencies은 도서관 사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의미하며 1) Reference and Research Services, 2) Library Management, 3) Collection Management, 4)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

이 포함된다. subject competencies는 law librarian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대학원 교육의 기본 내용을 의미하며, 1) the Legal System, 2) the Legal Profession and Its Terminology, 3) Literature of the Law, 4) Law and Ethics 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법학사서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학사서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 이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논의되고 있어, 한국에서 진행되는 법학사서에 대한 논의에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4. 연구 방법

4.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국외에서 법학사서를 주제로 진행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Scopus와 ProQuest의 Library Science Database에서 관련 논문을 수집하였다. 두 데이터베이스에서 'law librarian'과 'law librarianship' 키워드로 검색한 후, '영어'로 작성된 '논문' 중 '2001년 이후 출간'된 논문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 사서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법학 사서 관련 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므로, 과거 출간된 논문보다 최근 출간된 논문 분석이 더 적절하다 판단하여 논문 출간 연도를 '2001년 이후 출간'으로 제한하였다. 검색 결과에 대해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주제어, 원문 등을 검토하여 법학 사서 관련 논문만을 선별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Scopus에서 212건, ProQuest에서 113건으로 전체 325건이다.

수집된 논문 중 119건의 논문에서만 저자 키워드가 확인되어, 저자 키워드 분석으로는 전체적인 연구동향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초록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검색된 논문에 대해 중복 데이터 제거, 초록과 저자 키워드 공백에 대한 추가 확인, 초록과 저자 키워드가 모두 공백인 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ProQuest의 경우 서지 정보로 제공하는 '식별 키워드'가 논문 원문에서 확인되는 저자 키워드와 다른 경우가 많아 ProQuest에서 검색된 논문의 저자 키워

드는 논문 원문 확인 과정을 통해 별도로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저자 키워드 분석 대상 논문은 199건이며, 초록 분석 대상 논문은 306건이다. 저자 키워드 분석 논문은 모두 초록 분석 논문에 포함된다.

4.2 키워드 추출 및 정제 과정

저자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제하였다.

- 1) 검색어인 'law librarian'과 'law librarianship'을 삭제하였다. 법학 사서에 대한 논의에서 'law library' 키워드는 빈번히 등장하는 키워드이므로 'law library' 키워드도 삭제하였다. 이때 'academic law library'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United American', 'Canada', 'Toronto', 'Vanderbilt University', 'Trilton law library'와 같이 국가명, 도시명, 대학명, 도서관명 등의 고유명사를 삭제하였다.
- 3) 복수형 어휘는 단수형으로 수정하였다. 축약어를 제외한 키워드의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교체하였다.
- 4) EU, BIALL(the British and Irish Association of Law Librarians), AALL(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등의 협회명, 단체명은 전체 명칭이 아닌 축약어로 통일하였다.
- 5) 유의어의 경우 하나의 키워드를 대표어로 정하여 통일시켰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law faculty, faculty of law → law faculty
 - special librarian, specialist librarian → special librarian

- pro se patron, pro per patron → pro se patron
- law journal, legal journal → legal journal
- electronic resource, e-resource → electronic resource

초록에서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Netminer는 명사 키워드를 추출하기 전 지정어 사전, 시소러스 사전, 제외어 사전의 입력을 요구한다. 지정어 사전은 'law faculty', 'legal information' 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지만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를 함께 추출하도록 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어 사전은 저자 키워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고, 시소러스, 제외어 사전은 저자 키워드 정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제외어 사전에는 초록 텍스트에서 자주 반복되는 어휘인 'article', 'author', 'paper', 'discussion', 'result' 등의 키워드도 포함시켰다. 지정어, 시소러스, 제외어 사전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는 빈도 분석, 연결 중심성 분석,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연결된 키워드들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드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이다. 연결중심성이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만을 고려해 특정 노드의 중심성을 평가하는 반면,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해당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 값을 가중치로 반영해 계산한다(공인택, 2021, 49).

그러나 수집한 전체 논문 306건 중 199건의 논문에서만 저자 키워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자키워드 분석만으로는 법학 사서 관련 연구 동향의 전체적인 분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초록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서들이 다양한 토픽의 집합이라 가정하며, 토픽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양한 비율로 혼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문서를 구성하는 토픽 또는 토픽을 반영하는 키워드의 중요도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토픽모델링이다. 문서의 키워드 분포를 관찰된 확률

<표 2> 지정어, 시소러스, 제외어 사전 예시

구분	키워드 예시
지정어	law faculty,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legal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overload, library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access service, reference service, research instruction
시소러스	law faculty, faculty of law → law faculty special librarian, specialist librarian → special librarian pro se patron, pro per patron → pro se patron law journal, legal journal → legal journal electronic resource, e-resource → electronic resource
제외어	law librarian,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국가명, 도시명, 대학명, 도서관명 등의 고유명사 article, author, paper, discussion, result

변수로, 문서마다 분포하는 토픽의 확률을 숨겨진 확률 변수로 간주한 후, 이것을 결합한 확률 분포를 정의하여 문서에 숨겨진 주제 구조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친다. LDA 토픽모델링이란 확률 분포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Blei, 2012, 77-80).

초록 키워드에서 추출한 명사 키워드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진행하기 전 TF-IDF 값이 낮은 키워드를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library', 'law', 'librarian'과 같이 빈도는 높으나 여러 초록에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제거되었다. 토픽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픽 수와 문서 내 토픽 분포, 토픽의 단어 분포를 구성하는데 사용하는 α , β 값을 지정해주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선 α 값으로 50/토픽 수(Griffiths & Steyvers, 2004), 0.1과 0.5 사이의 수, 0.5와 2 사이의 수 등을, β 값으로 0.1, 0.01 등을 사용하는 등(Naili, Chaibi, & Ghézala, 2017, 49) 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값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선 토픽 수는 3~10개, α 값으로 0.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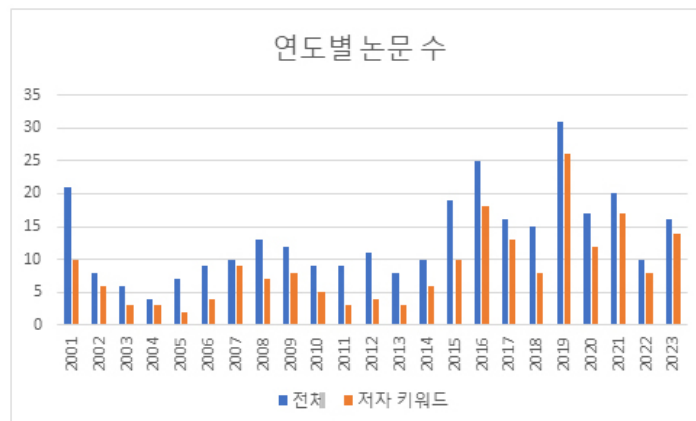
사이의 값과 50/토픽 수, β 값으로 0.01~0.1 사이의 값을 적용하여 실루엣 계수를 도출하였다. 실루엣 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주제 제시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Mehta, Caceres, & Carter, 2014). 실루엣 계수가 높은 상위 모델 10개를 선정 후, 토픽별 배치된 키워드와 논문을 검토하여 토픽 분류가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모델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저자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 초록의 LDA 토픽 모델링은 모두 Netminer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5. 연구결과

5.1 논문 출판 연도와 학술지 분석

먼저 전체 논문과 저자 키워드 분석 논문의 출판 연도를 확인하였다. 연도별 출판 논문 수는 <그림 1>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1> 연도별 출판 논문 수

전체 논문의 연도별 출판 경향을 살펴보면 2014년 이전까지는 10편 내외의 논문이 꾸준히 출판되다가 2015년부터 출판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된 해는 2019년으로 31편이다.

저자 키워드 논문의 경우 2016년 이후 논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연도에 출판된 전체 논문 수와 비교하면, 2016년 이전에는 전체 논문 수 대비 적은 수의 논문에서만 저자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전체 논문의 절반 이상의 논문에서 저자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 키워드의 분석 결과는 2016년 이후의 연구 경향을 좀 더 반영하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를 확인하였다. 전체 논문의 경우 상위 5개의 학술지를 제외하면 출판된 논문 수가 4개 이하인 학술지가 다수이므로, 상위 5개의 학술지만을 제시하였다. 전체 논문과 저자 키워드 논문의 학술지별 출판 논문 수는 <표 3>과 같다.

법학 사서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이며, 다음으로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Law Library Journal』 순이다. 이 세 개의 학

술지에 실린 논문은 210개로,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69%를 차지한다.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는 Taylor&Francis 출판사에서(Taylor & Francis online, n.d.), 『Legal Information Management』는 the British & Irish Association of Law Libraries(BIALL)에서(BIALL, n.d.), 『Law Library Journal』은 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AALL)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다(AALL, n.d.). 『Legal Information Management』나 『Law Library Journal』은 학회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제를 소개하거나 협회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그동안의 협회 활동, 노력,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논문들을 게재하기도 해서 저자 키워드와 초록 분석 결과에서도 'BIALL'이나 'AALL'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5.2 저자 키워드의 빈도 분석

<표 4>는 저자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한 후 빈도가 큰 상위 20개의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legal research'로 27회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legal information'(20회), 'academic law library'(18회), 'legal education'(16회), 'BIALL'(11회) 순이다. 'legal

<표 3> 학술지별 출판 논문 수

번호	전체 논문		저자 키워드 논문	
	학술지명	논문 수	학술지명	논문 수
1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76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70
2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74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64
3	Law Library Journal	60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17
4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20	Public Services Quarterly	4
5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6	Library Management	3

〈표 4〉 저자 키워드의 출현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번호	키워드	빈도
1	legal research	27	11	information management	6
2	legal information	20	12	information professional	6
3	academic law library	18	13	collection development	6
4	legal education	16	14	pro se patron	6
5	BIALL	11	15	teaching	6
6	survey	10	16	library	5
7	academic library	8	17	law firm library	5
8	law firm	7	18	legal instruction	5
9	law student	7	19	library management	5
10	legal profession	6	20	automation	5

research', 'legal information', 'legal education' 키워드들은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법률 교육 서비스 등 법학 사서의 역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법학 사서는 법학 교수와 학생,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 정보원과 2차 정보원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보원을 탐색, 검색,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또한 법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훈련시키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고 교육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변호사와 로펌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과 방법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Chiorazzi & Condit, 2011; Dunn & Whiteman, 2022; Gay & Jackson, 2001; Plumb-Larrick, 2010). 이와 같이 법학 사서의 연구 지원 서비스,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legal education' 키워드는 'teaching', 'legal instruction' 키워드와도 관련된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법학사서가 로스쿨 교수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법률정보조사'나, '법률연구방법론'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오일석, 김성훈, 2014, 488). 대학은 법학 사서에 대해 법률 연구가이자 법률 연구의 교육자로서 인정해야 하며, 로스쿨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 자리에 법학 사서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Alford, 2009; Parker, 2011a).

'legal information' 키워드는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professional', 'collection development' 키워드와 관련된다. 법률 장서와 법률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목록과 이용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법학 사서의 법률 정보 전문가 역할과 관련 있는 키워드들이다(Bhardwaj & Madhusudhan, 2016; Fischer, 2008).

키워드 중 'pro se patron'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재판 참여자를 일컫는 법률 용어로(Law.com, n.d.), 이 키워드를 통해 법학사서가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이용자도 정보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여 참고정보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 도서관 협회인 'BIALL'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은 5.1장에서 언급한대로 게재 논문 수가 많은 학술지 중 하나인 『Legal Information Management』가 BIALL에서 출판하는 학술지인 것과 관련 있다.

5.3 저자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

분석을 위해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는 518개의 키워드가 1656개의 링크로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출현빈도 2회 이상인 키워드와 동시 출현 빈도 3회 이상인 키워드 쌍만을 추출한 후, 키워드 간 동시출현빈도 행렬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규화 연결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정규화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legal research'이며 다음으로 'legal information', 'legal education', 'history', 'legal instrucion' 순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대부분 출현 빈도가 상위인 키워드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출현빈도 상위 20개에는 속하지 않으나 연결중심성은 상위인 키워드로는 'history', 'faculty status', 'barrister'이며, 이 키워드에 대한 논의는 뒷부분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legal research'이며 다음으로 'legal education', 'legal instruction', 'teaching', 'legal information' 순이다. 대체로 출현 빈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표 5〉 저자 키워드의 정규화 연결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 결과

	키워드	Normalized Degree Centrality	키워드	Eigenvector Centrality
1	legal research	0.3125	legal research	0.641909
2	legal information	0.25	legal education	0.512517
3	legal education	0.1875	legal instruction	0.434922
4	history	0.125	teaching	0.207277
5	legal instruction	0.125	legal information	0.18386
6	automation	0.0625	law student	0.155458
7	library management	0.0625	faculty status	0.155458
8	law student	0.0625	information management	0.074229
9	teaching	0.0625	BIALL	0.059383
10	survey	0.0625	information professional	0.044537
11	faculty status	0.0625	/	
12	information professional	0.0625		
13	information management	0.0625		
14	legal profession	0.0625		
15	academic law library	0.0625		
16	BIALL	0.0625		
17	barrister	0.0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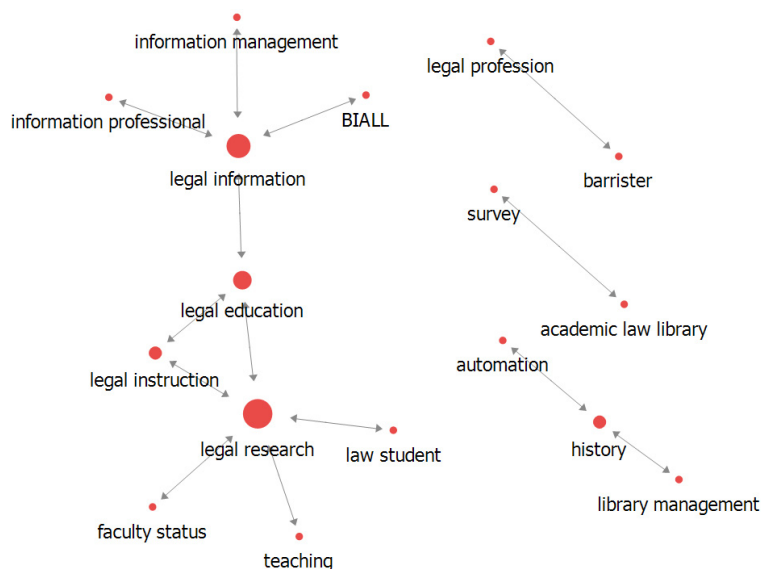
키워드들이 아이겐벡터 중심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legal education', 'legal instruction', 'teaching', 'law student'와 같이 법학 사서의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연결중심성 순위보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가 조금씩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키워드 네트워크 상에서 두 개의 키워드 중심인 'legal information', 'legal research' 키워드 사이를 'legal education'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구성된 키워드들의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다.

'legal research' 키워드와 'legal information' 키워드가 각각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legal education' 키워드가 두 키워드를 연결하고 있다. 'legal research' 키워드 주변에는 'law student', 'teaching', 'faculty status', 'legal instruction'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다. 'legal information' 키워드 주변에는 'information professional',

'information management', 'BIALL'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다. 법학 사서에 대해 법률 연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교육하고, 법률 정보 전문가로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교육하는 역할이 관련 논문들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legal profession'과 'barrister', 'survey'와 'academic law library'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없이 두 키워드 간의 연결만 존재하며, 'automation', 'history', 'library management' 키워드는 세 개의 키워드 간 연결만이 존재한다. 'legal profession'과 'barrister' 키워드는 법학 사서가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논문들에서 등장한 키워드이다(Binsfeld, 2019; Million, 2022). 'survey'와 'academic law library' 키워드는 대학의 법학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와 정보 행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서와 서비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논문들에서



<그림 2>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제시되었다(Hinderman, 2005; Schilt, 2007). 'automation', 'history', 'library management' 키워드는 Berring R.C. 저자가 자신의 법학 사서로서의 활동과 그동안 경험했던 도서관 변화를 제시한 5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키워드들이 다(Berring, 2013; Berring, 2014).

5.4 LDA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 진행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은 토픽 수 5개, $\alpha=10$, $\beta=0.05$, iteration = 1,000이다. 토픽별 제시된 키워드와 논문을 검토하여 토픽의 명칭을 정하였다. 5개의 토픽 명칭과 각 토픽에서 제시된 키워드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장서와 정보자원의 개발'로 명명하였으며, 'research', 'university', 'collection', 'resource', 'student'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법학도서관의 장서와 정보자원에 대해 개발, 평가, 이용자 요구 분석, 도서관 간 자원 공유에 대한 논문들이 첫 번째 주제로 포함된다(Anyagou, 2014; Kaba & Mostafa, 2021; Onwudinjo, 2015).

두 번째 주제는 '법률 정보 자원의 접근 도구'로 명명하였으며, 'legal information', 'access', 'source', 'user', 'system'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법령 정보, 법원 판례, 법률 저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출처가 다

〈표 6〉 5개의 토픽과 토픽별 키워드(괄호는 키워드별 확률)

토픽 제목	장서, 정보자원 개발	법률 정보 자원의 접근 도구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역량 발전
토픽별 비중	0.16	0.17	0.21	0.20	0.25
1st Keyword	research (0.055)	legal information (0.048)	service (0.063)	information (0.095)	law school (0.035)
2nd Keyword	university (0.042)	access (0.031)	legal research (0.046)	technology (0.037)	skill (0.031)
3rd Keyword	collection (0.039)	source (0.031)	material (0.033)	profession (0.032)	course (0.027)
4th Keyword	resource (0.033)	user (0.027)	experience (0.030)	work (0.023)	knowledge (0.027)
5th Keyword	student (0.029)	system (0.023)	way (0.024)	practice (0.023)	development (0.020)
6th Keyword	law student (0.029)	tool (0.022)	firm (0.021)	change (0.018)	management (0.019)
7th Keyword	academic law library (0.019)	use (0.020)	need (0.020)	conference (0.018)	BIALL (0.018)
8th Keyword	state (0.019)	search (0.019)	book (0.016)	world (0.014)	education (0.015)
9th Keyword	finding (0.018)	content (0.018)	challenge (0.015)	group (0.014)	reference (0.013)
10th Keyword	survey (0.018)	purpose (0.018)	process (0.015)	role (0.013)	career (0.012)

른 정보 자원에 대한 평가,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구축, 온라인 법률 연구 가이드 작성,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 정보 자원 활용 교육 등에 대한 논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Bhardwaj & Madhusudhan, 2016; Fischer, 2008; Fletcher, 2021).

세 번째 주제는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로 명명하였으며, 'service', 'legal research', 'material', 'experience', 'way'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다.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법률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연구 수행 방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논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구독료 관련 논의, 영국 대형 법률 회사들이 회사 내 도서관을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쟁 등이 이 주제에 포함되었다(Binsfeld, 2019; Brown, 2014; Gotschall, 2010).

네 번째 주제는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로 명명하였으며,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 'work', 'practice'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다. 세 번째 주제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률 연구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춰 법학 사서의 역할도 변화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변화된 법률 연구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법률 정보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법학 사서는 이를 교육, 훈련시키는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법학 사서와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연구, 법학 사서가 이용자에게 정보 거버넌스를 가르쳐야 하며, 이용자와 새로운 정보 기술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논문 등이 포함된다(Aman, 2019; Anyim, 2019; deMaine, 2016).

다섯 번째 주제는 '법학 사서의 역량 발전'으로 명명하였으며, 'law school', 'skill', 'course',

'knowledge', 'development'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다. 법학 사서의 양성, 지속 교육, 역량 발전을 위한 사서들의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주제에 포함되었다(Parker, 2011b; Rimland & Masuchika, 2008).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와 초록 키워드 분석 결과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에선 법학 사서의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가 주요 주제로 확인되었다. 연구지원 서비스는 법률 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하며,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개발을 포함한다. 또한 법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선 다양한 출처의 법률 정보 자원을 정리, 목록화하고, 이용 방법 가이드를 제작, 교육하며, 이용자의 법률 정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AALL Body of Knowledge』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 사서의 역량 5가지 중 3가지가 'research+analysis', 'information management', 'teaching+training'이며, 이는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초록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 도출된 5개의 주제는 '장서, 정보자원 개발', '법률 정보 자원의 접근 도구',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역량 발전'이다. 법률 정보 자원, 접근 도구에 대한 내용은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와 동일하지만,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와 이에 발맞춘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와 '역량 발전'은 저자 키워드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제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법률 정보 자원이 다양해지고, 접근 방

법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독 관련 문제, 대형 로펌 회사의 도서관 외주화와 같은 변화와 갈등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법학 사서는 특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정보 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학 사서 양성 과정, 법학 사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 협회의 역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6. 결론

법학 분야는 의학 분야와 함께 주제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주제전문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주제전문사서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정재영, 2009, 124), 법학사서의 경우 관련된 자격 기준,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 수준,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 논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국외에서 진행된 법학 사서 관련 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법학 사서 관련 연구의 논의 주제 확장과 다양화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제전문사서, 의학사서, 법학사서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였고, 해외 법학사서 관련 논문들의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외 법학사서 관련 논문은 306건이 수집되었다. 저자 키워드가 있는 논문은 199건이며, 저자키워드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legal research', 'legal information', 'legal education' 키워드가 빈도, 연결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분석되어 법학 사서의 주요 역할이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 교육 서비스임을 확인하였다.

초록 데이터를 이용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이 토픽은 '장서, 정보자원 개발', '법률 정보 자원의 접근 도구',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법학 사서의 역량 발전'이다. 저자 키워드에서도 제시되었던 법률 정보 서비스 외에도 법학 사서를 둘러싼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 법학 사서의 역할 변화 모색, 법학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학사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의되어야 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법학사서가 제공하는 주제전문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학사서의 주요 역할로 법률 연구 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법률 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국외에서는 법학사서의 전문 영역으로 'leadership, research + analysis, information management, teaching + training, marketing outreach, business acumen'을 제시하며 법학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법학 사서의 재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학 사서가 법률 연구 방법론에 대한 전문가이자 교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면서, 법학 대학원에서의 연구 방법론 강의, 법

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논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법률 연구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법학 사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초록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법률 연구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온라인 법률 정보원의 증가, 법률 정보 접근 방법의 다양화, 활용 가능한 도구의 개발, 이용자의 법률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훈련 방법에 대한 모색 등 논의해야 할 주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제전문사서, 법학사서 관련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사서의 자격과 역량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의학사서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법

학사서 자격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학사서의 재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넓게는 주제 전문 배경을 갖춘 사서를 양성하기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법학사서의 주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 및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 서비스는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 경험을 갖춘 사서에 의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전문화된 법률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법학사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하며, 법학사서와 관련된 제도 마련, 지원 방안 모색, 관련 학계의 관심과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미혜 (1999). 주제전문사서직의 일반전공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주제전문사서, 학과제 학생, 학부제 학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1), 129-144.
- 강미혜 (200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방안 연구: 법률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49-68.
- 강미혜 (2005). 주제전문사서직의 교육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4, 67-86.
- 공인택 (2021). 환상형 고속도로를 활용한 도시물류 네트워크 재설계 방안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물류시스템학과.
- 김배원 (2013). 법학전문도서관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2년 인증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4), 145-175.
- 김상찬 (2009).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정보조사 교육. 법학연구, 36, 373-399.
- 김수정 (2005). 주제전문사서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디지털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 도서관, 38, 51-65.
- 김태민, 김혜원, 이민지 (2021). 국내 의학도서관 사서의 코로나19 상황 인식이 정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303-319.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303>
-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6-64.
- 노동조, 안인자, 노영희, 김성진 (2009). The current state of and needs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정보관리학회지, 26(2), 43-63. <https://doi.org/10.3743/KOSIM.2009.26.2.043>
- 노영희 (2013).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 및 자격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93-122.
- 노영희, 노동조, 안인자, 김성진 (2008).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97-123.
-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 (2017). 주제전문인력 확보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5-3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005>
- 노영희, 오의경 (2018).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인식 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5-25.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005>
- 박수희, 정동열 (2012). 대학도서관 리에중 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11-339. <https://doi.org/10.4275/KSLIS.2012.46.4.311>
- 박유주 (2010). 국내 법학전문사서 기준 및 법률정보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정미, 김영주, 정지연 (1994). 의학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45개 병원도서관 59명을 중심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21(2), 67-73.
- 신은자 (2020). 의학도서관 사서의 SR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179-19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179>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안인자, 노동조, 노영희, 김성진 (2008). 국내 주제전문사서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533-549.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533>
- 안인자, 노동조, 노영희, 김성진 (2009).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333-361.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333>
- 오의경 (2015). 국내 의학사서자격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405-421.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405>
- 오의경 (2016).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의학용어와 MeSH'

-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37-456.
<https://doi.org/10.4275/KSLIS.2016.50.1.437>
- 오일석, 김성훈 (2014). 법학전문사서의 교육과 육성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1(3), 483-526.
위키백과 [발행년불명]. 법학전문대학원 항목.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D%95%99%EC%A0%84%EB%A%B88%EB%8C%80%ED%95%99%EC%9B%90>
- 윤영대 (2002). 의학사서직을 위한 교육: 변화하고 있는 직업의 교육에 대한 비교 고찰.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지, 29(1/2), 5-11.
-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이종만 (2011). 법학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혜영 (2023). 의학사서의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내외 의학도서관협회 교육프로그램 비교 및 분석: MLA 및 KMLA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2), 59-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2.059>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임민정 (2015). 법률주제전문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지은 (1998). 법률사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 전공.
- 장혜란, 김정아 (2017). 의학도서관 사서들의 직무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45-26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45>
- 정재영 (2007).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협력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도서관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91-409. <https://doi.org/10.4275/KSLIS.2007.41.1.391>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3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정재영 (201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123-142.
- 최상기, 안인자 (2009). 대학도서관 리에종 서비스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67-182.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2.167>
- 한국도서관협회 (2022). 2022년도('21년 실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발행년불명].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전문도서관 항목.
출처: https://www.kla.kr/kla/reference07/4121?sfl=wr_subject&stx=%EC%A0%84%E%

AC%B8+%EB%8F%84%EC%84%9C%EA%B4%80&sop=and

- 홍명자 (2001).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249-274.
- 황재영 (2011).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운영 현황과 사서의 인식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137-158.
- AALL (1988). AALL Guidelines for graduate programs in law librarianship. Available: https://www.aallnet.org/bok_profleadership/aall-guidelines-for-graduate-programs-in-law-librarianship/
- AALL (2022). Body of knowledge(BoK). Available: <https://www.aallnet.org/education-training/bok/>
- AALL [n.d.]. Law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aallnet.org/resources-publications/publications/law-library-journal/>
- Alford, D. (2009). The development of the skills curriculum in law schools: Lessons for directors of academic law librarie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8, 301-319. <https://doi.org/10.1080/02703190902961676>
- Aman, H. (2019). The legal information landscape: change is the new normal.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9, 98-101. <https://doi.org/10.1017/S1472669619000227>
- Anyagou, U. (2014). Postgraduate law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ur: Implications for improved provision of resources and services in Nigerian 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library in Lagos state.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 Anyim, W. O. (2019). Dimensions of information synergy between legal practitioners and law librarians in the digital age.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 Berring, R. C. (2013). The education of a twentieth-century law librarian.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2(1-2), 1-12. <https://doi.org/10.1080/0270319X.2012.723570>
- Berring, R. C. (2014). Part II. 1975-1978: Days at the mother library.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3(2), 191-202. <https://doi.org/10.1080/0270319X.2014.898534>
- Bhardwaj, R. K. & Madhusudhan, M. (2016). Comparative analysis of online legal information sources in Indian environment. *New Library World*, 117, 251-278. <https://doi.org/10.1108/NLW-07-2015-0050>
- BIALL [n.d.].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Available: <https://biiall.org.uk/publications-2/legal-information-management/>
- Binsfeld, A. (2019). New barristers' information literacy challenges as they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the workplace.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9, 36-45. <https://doi.org/10.1017/S1472669619000057>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ACM*, 55(4), 77-84.
<http://doi.acm.org/10.1145/2133806.2133826>
- Brown, F. (2014). Outsourcing law firm libraries to commercial law library and legal research services. The UK experience.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45(3), 176-192.
<https://doi.org/10.1080/00048623.2014.920130>
- Chiorazzi, M. & Condit, C. (2011). Legal research boot camp: One approach to meeting the research needs of law student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0(4), 229-309.
<https://doi.org/10.1080/0270319X.2011.625868>
- deMaine, S. D. (2016). Preparing law students for information governance.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5(2), 101-123. <https://doi.org/10.1080/0270319X.2016.1177422>
- Dunn, C. M. & Whiteman, M. (2022). Developing essential research skills for law practice: the legal research competency program.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41(2), 67-81.
<https://doi.org/10.1080/0270319X.2022.2089809>
- Fischer, C. K. (2008). Helping millennials find US supreme court cases online. *Reference Service Review*, 36(3), 245-251. <https://doi.org/10.1108/00907320810895332>
- Fletcher, K. D. (2021). Casebooks, bias, and information literacy – Do law librarians have a duty?.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40, 184-198.
<https://doi.org/10.1080/0270319X.2021.1966240>
- Gay, W. D. & Jackson, J. (2001). Creating and using web resources to train attorneys: an experience with the state bar.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9, 57-73.
- Gotschall, S. (2010). Teaching cost-effective research skills: have we overemphasized its importance?.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9(2), 149-163.
<https://doi.org/10.1080/02703191003757245>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1), 5228-5235.
<https://doi.org/10.1073/pnas.0307752101>
- Hinderman, T. A. (2005). What is your library worth? Changes in evaluation methods for academic law librarie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4, 1-40.
https://doi.org/10.1300/J113v24n01_01
- Kaba, A. & Mostafa, I. I. (2021). Faculty and students' perceptions toward Islamic and law information resources and services.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 Law.com, [n.d.]. Legal dictionary. Available: <https://dictionary.law.com/>.
- Lee, Jootaek (2015). Frontiers of legal information: the U.S. law librarians of the future. *International*

- Journal of Legal Information, 43(2-3), 411-433. <https://doi.org/10.1017/S0731126500012567>
- Mehta, V., Caceres, R. S., & Carter, K. M. (2014). Evaluation topic quality using model clustering. 2014 IEEE Symposium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Data Mining.
- Million, A. (2022). Raising the bar: how chambers librarianship has risen to twenty years of challenges.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22, 119-125. <https://doi.org/10.1017/S147266962200024X>
- Naili, M., Chaibi, A. H., & Ghézala, H. B. (2017). Arabic topic identification based on empirical studies of topic models. *Revue africaine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mathématiques appliquées*, 27.
- Onwudinjo, O. T. U. (2015). Law journal collections: accreditation issues and imperatives for law libraries.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 Parker, C. A. (2011a). How law schools benefit when librarians publish, teach, and hold faculty status.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0(3), 237-253. <https://doi.org/10.1080/0270319X.2011.602947>
- Parker, C. A. (2011b). Tenure advice for law librarians and their directors. *Law Library Journal*, 103(2), 199-217.
- Plumb-Larrick, C. A. (2010). Bankruptcy: a legal research course.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29(3), 193-227. <https://doi.org/10.1080/02703191003751446>
- Rimland, E. & Masuchika, G. (2008). Transitioning to corporate librarianship. *Journal of Business and Finance Librarianship*, 13(3), 321-334. <https://doi.org/10.1080/08963560802183302>
- Schilt, M. A. (2007). Inclusion and participation: law librarians at law faculty meetings. *Law Library Journal*, 107(1), 113-127.
- Taylor&Francis online [n.d.]. *Leg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Available: <https://www.tandfonline.com/action/journalInformation?show=aimsScope&journalCode=wlr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Noh, Dong-Jo, Noh, Younghee, & Kim, Sung-Jin (2008).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4), 533-549. <https://doi.org/10.4275/KSLIS.2008.42.4.533>
- Ahn, Inja, Noh, Dong-Jo, Noh, Younghee, & Kim, Sung-Jin (2009). Competency based curriculum

- development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333-361. <https://doi.org/10.4275/KSLIS.2009.43.1.333>
- Chang, Hye Rhan & Kim, JeongA (2017). A study on the job burnout of medical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45-26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45>
- Choi, Sang Ki & Ahn, Inja (2009). A study on the operational plan of liaison service at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67-182.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2.167>
- Chung, Jaeyoung (2007). A study on the cooperation model of subject specialist upbringing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91-409. <https://doi.org/10.4275/KSLIS.2007.41.1.391>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t academic libraries: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Chung, Jaeyoung (2013).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123-142.
- Gong, In Taek (2021). *Research on Re-designing Urban Logistics Network Using Circular Highway*. Doctoral dissert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Hong, Myeongja (2001). A study on the education of specialized law libraria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249-274.
- Hwang, Jae-Young (2011). An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and perception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n special librari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137-158.
- Jang, Jee-Eun (1998). *A Study on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Law Librarian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orea.
- Kang, Mia Hye (1999). A Comparative study on a general culture concerning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129-144.
- Kang, Mia Hye (2002).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bibliography course for the education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49-68.
- Kang, Mia Hye (2005).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hip. *Duksung*

- Women's University Journal, 34, 67-86.
- Kim, Bae-Won (2013). Current status & improvement proposals for law school library: focusing on 2012 evaluation results of law school accreditation. *Public Law Journal*, 14(4), 145-175.
- Kim, Sang-Chan (2009). Law school's education in legal research, writing and analysis. *Law Review*, 36, 373-399.
- Kim, Su-Jeong (2005). System construction plan to support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focusing on digital references. *Digital Library*, 38, 51-65.
- Kim, Tae Min, Kim, Hai Hin, & Lee, Min Ji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domestic medical library librarians' awareness of the COVID-19 situation on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303-319.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30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2). 2022('21 performance) Public library operation evaluation results repor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n Library Association [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lossary, special library. Available: https://www.kla.kr/kla/reference07/4121?sfl=wr_subject&stx=%EC%A0%84%E%AC%B8+%EB%8F%84%EC%84%9C%EA%B4%80&sop=and
- Lee, Ho Sin (2012). Narrative Inquir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ubject Specialist: Focusing on Law Librarians.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Lee, Jong Man (2011). A Study on Rules and Qualifications of Law Librarian.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Korea.
- Nam, Young-Joon &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6-64.
- Noh, Dong-Jo, Ahn, Inja, Noh, Younghee, & Kim, SungJin (2009). The current state of and needs for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2), 43-63. <https://doi.org/10.3743/KOSIM.2009.26.2.043>
- Noh, Younghee & Oh, Euikyung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IS students about public library's subject special services and subject special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5-25.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005>
- Noh, Younghee (2013). A study on investigating roles and qualifications of health information libraria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93-122.
- Noh, Younghee, Noh, Dongjo, Ahn, Inja, & Kim, Sung-Jin (2008). An analysis of subject specialized

-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97-123.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the acquisition of subject specialized manpower and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5-3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4.005>
- Oh, Euikyung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medical librarian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405-421.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405>
- Oh, Euikyung (2016). A study on improving perception of subject: special librarian and subject special services: Focusing on survey targeting students who take 'medical terms and MeSH' and 'health & medical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437-456. <https://doi.org/10.4275/KSLIS.2016.50.1.437>
- Oh, Il Seok & Kim, Sunghun (2014). A study on educating and training law librarians. *Seoul Law Review*, 21(3), 483-526.
- Park, Jung-Mi, Kim, Young-Ju, & Jung, Ji Yeon (1994).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medical librarians: Focusing on 59 people from 45 hospit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1(2), 67-73.
- Park, Soo-Hee & Jeong, Dong-Youl (2012).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of a liaison training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311-339. <https://doi.org/10.4275/KSLIS.2012.46.4.311>
- Park, Yoo Ju (2010). A study on Law Librarian and Law Information Service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 Rhee, Hey-Young (2023). Comparison and analysis of educational programs of Korean and Americ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s to improve the role of medical librarians for user services: focusing on MLA and KML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2), 59-9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2.059>
-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Shin, Eun-Ja (2020). Medical librarians' contribution to SR search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179-19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179>
- Wikipedia [n.d.]. law school. Available: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D%95%99%EC%A0%84%EB%AC%B>

88%EB%8C%80%ED%95%99%EC%9B%90

- Yim, Min jeong (2015). A Study on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Law Librarian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Yun, Young Dae (2002).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a comparative review of education in a changing profess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9(1/2), 5-11.
- Yun, Young Dae (2003).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31-146.

